

칼럼

장기채 주필



추석의 마음...엄마를 외락 안아보세요

올 추석에는 엄마를 외락 안아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세요.

그 마음이 추석 아니겠는가.

돌이켜 보면 우리의 부모세대는 지난 속에서도 부모를 봉양했고 아이들을 서넛 이상 낳아 키웠다. 그런데도 지금은 50년 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배가 늘었어도 부모를 건사하기는커녕 비싼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소연 한다.

부모도 모시기 못하겠다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면 50년 전보다 더 가난해진 것일까. 그런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쓸쓸한 시대지만 올해도 여전히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로 연휴고속도로는 정체되었지만 그래도 반값과 마냥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제 추석이 코앞이다. 올해도 썰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상님 차례 상에 술 한 잔 올리며 가족이 둘러앉아 정담 나누는 민중의 대명절이다. 이런 저런 세상이 아기 하다보면 술 한잔 생각날 수밖에 없는 민중 올해는 부모공경,

형제 우애 나누는 덕담이 제격일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더 없이 쓸쓸한 추석이 될 것 같다. 오죽했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식들 얼굴이나 봤으면..." 하는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까.

추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큰 명절이다. 일 년 동안 가꾼 곡식을 거둬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다고 해서 속담 중에 '일 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생겼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팔월 한가위야말로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요, 또 우리네 세시 풍속의 하나로 '이름 차례'라는 말이 있었다.

이처럼 심 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금은 모자라게 사는 구분철학(九分哲學)은 우리 한국인이 터득

하고 살아온 처세철학이다.

밥은 배불리 먹지 말고 세력은 남김없이 부리지 말며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하지 말고 복은 남김없이 누리지 않는 것이 화를 멀리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인생에 있어 욕심이나 돈, 권력, 명예 등을 적정한 선에서 자제해야지 가득 채우려 하면 무(無)로 돌아간다는 구분철학의 구현인 것이다.

어쨌든 녹록지 않은 형편이지만 모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운 이들과 마주 앉아 도란도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는 여전히 축복의 시간일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황금연휴에 대체휴일까지 끼여있어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예상을 뛰어넘을 것 같다.

한가위날 이른 아침이면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 수확한 햇곡식과 색색으로 물들인 '송편'으로 차례 상을 마련해서 조상님과 신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올린다.

달 밝은 저녁에는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모여 흐뭇한 추석

놀이를 즐긴다. 이날은 송편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만월과 같은 둥근 모양의 '월병'을 만들지만 우리는 반달모양의 송편을 빚는다. 반달은 그것이 날마다 커지므로 발정의 상징으로 본래서 나온 것이며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고대 도성(都城) 이름이 대부분 반월성(半月城)인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달과 가장 친근한 나라를 들자면 우리를 앞설 민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 밝은 한가위 풍속은 옛날과 같게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요즘처럼 자꾸만 차갑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추석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차례를 지내는 일은 뜻 깊은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다.

그러나 이제는 못살던 과거와는 달리 의식(衣食) 풍부하며 근심걱정 없이 비교적 안락하게 살지만 조상 숭배와 부모님 찾아뵙는 일은 식어가의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풍요로운 한가위에 차례와 성묘하는 일은 세월이 흐른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우리는 그 간 고향을 등졌거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한가위 세시풍속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社說

전력수급 관리 만전 기해야

올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냉방 사용이 늘면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여러 번 경신했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와 달리 전력이 부족한 날은 없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 동안 공급예비율은 7월 23~27일, 8월 13~14일 등 7일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했다.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7월 24일에는 예비율이 7.7%까지 낮아졌지만, 이때도 공급 가능한 전력과 수요의 차이를 의미하는 공급예비율은 709만kW에 달했다. 예비력이 5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200만kW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기 사용 자체를 줄이는 수요관리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공급이 충분했다.

기업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장하는 수요감축요청(DR)

은 지난겨울에 10번 사용했지만, 올해 여름에는 기업에 부담될 수 있고 DR 없이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발령하지 않았다.

DR을 최대한 활용하면 최대 420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이 또한 전력공급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올여름 사상 최대 수준의 공급능력을 확보했고, 8월 중순에는 공급능력이 1억만kW까지 올라갔다.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에 비해 올여름을 무사히 넘긴 셈이다.

올여름과 같은 이상 난동이나 한파가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시대가 왔다. 한집을 철저한 대비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九州 禹跡

아름 구 九州禹跡

고을 주

성씨 우

발자취 적

▷ 뜻: 허우씨(夏禹氏)가 구주(九州)를 분별(分別)하니 기·연·청·서·형·양·예·양·풍이 구주(九州)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리 동네 범죄예방 효과 UP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가장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깥을 돌아다닌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단연, 24시간 전국 어디를 가든 안전한 우리나라의 '치안'일 것이다.

경찰청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분석표에 따르면 2017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검거율은 96%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치안공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적인 치안강국의 자부심으

로, 경찰은 범죄 관련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은, 지역 주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장소순찰 요청하면, 해당 시간대에 요청 장소를 집중순찰함으로써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순찰방식이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하며, 탄력순찰을 희망하는 장소가 있다면 온라인 순찰신문고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구대·파출소에

전화나 문자로 요청이 가능하다.

탄력순찰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4월 전남 보성에서는 심야 탄력순찰 중 강간피해자 발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8월 광주에서는 탄력순찰 도중 무면허 운전한 A씨를 검거하였다.

현재 무안경찰서에서는 탄력순찰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마을길잡이 1·1·2'호자순 탄력순찰'이라는 특수시책으로 개설했다.

향후 무안경찰서에서는 탄력순찰을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마을길잡이 1·1·2'호자순 탄력순찰'이라는 특수시책으로 개설했다.

및 다문화가정 등을 문안순찰하며,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노인상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대적 경찰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영국 정치인 로버트 필은 9가지의 경찰원칙에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제는 기존의 경찰과 시민의 수동적 관계를 벗어나 필연적 공동체로 거듭날 때이다.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여 범죄 예방과 치안민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구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현우 /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 순경

湖南新聞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민간)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